

순천에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 설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5년까지 500억 원 투자 인프라 확보 고흥엔 구성품 제조시설...전남도 "우주강국 전초기지로 키울 것"

순천에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이 설립된다. 애초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있고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데다,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으로도 선정된 고흥에 우주발사체 관련 시설을 집중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순천으로 선정되면서 배정이 주목받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4일 순천에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을 설립하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 조립장은 발사체의 각 단을 제작하고 기능을 점검하는 시설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차례 쏘아 올릴 우주발사체(누리호)를 조립·제작하는 새로운 조립장을 순천에 2만 3140㎡ 규모로 오는 2025년까지 약 5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치 경쟁에 나선 고흥·순천·장원 등을 대상으로 우주 및 국토개발 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순천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

지역 정치권과 전남도 안팎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누리호 4차례 추가 발사 등 정부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조립장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점과 정주 여건 등이 선정지 결정에 영향일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순천을 선정한 것 이외에도 향후 고흥에 발사체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되는 대로 발사체 핵심 구성품의 제조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고흥군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특화지구',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단지 예정지로 지정된 고흥군에 단조립장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한화가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단조립장 부지를 순천 읍촌산단으로 최종 선정했고, 연관산업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으로 지정해놓고 정작 우주발사체 관련 영커 기업이 고흥을 외면하면

향후 관련 기업들의 고흥 유치와 우주산업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얘기가.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7월 '우주항공 집적 단지를 중심으로 발사체-위성 클러스터 2개를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우주산업 육성과 관련해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서 NASA(나사·미국 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는 식으로 발언하면서 정책 기조가 한 차례 바뀐 데 이어 또 다시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순천은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순천시는 "가장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정에 환영한다"면서 "우주산업은 어느 한 지역의 특정한 독점이 아니라 연대와 연합정신으로 남해안벨트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일로,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정부, 우주 관련 기업과도 적극 협력,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성공을 통해 세계 7대 우주강국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표 핫플 휴심정, 광주시 1호 민간정원 됐다

총면적 6710㎡, 수목 28종·초화류 25종 등 22만본 식재

광주 대표 핫플레이스인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휴심정(사진)이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정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정원 '휴심정'은 대형카페와 함께 조성된 정원으로 지난 2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전인증제도 검토를 거쳐 광주시에 등록 신청서를 냈으며, 심의를 거쳐 지난달말 제1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됐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이다. 2015년 국내 첫 등록을 시작으로 2022년말 현재 전국 총 90개의 민간정원이 등록돼 있으나, 광주에서는 그동안 신청자가 없었다.

일반에게 공개되는 민간정원으로 등록하려면 정원 전체면적 중 녹지면적이 40% 이상이고, 기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민간정원에 등록되면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전문컨설팅, 자생식물 분양, 민간정원 네트

워크 멤버십 제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 첨단지구와 수암지구 사이 도천저수지변에 위치한 민간정원 '휴심정'은 등록면적이 총 6710㎡로, 수목 28종(교목 22종, 관목 6종)과 다양한 초화류 25종 약 22만본이 식재됐다. 사계절 개화시기를 고려한 수종 선정으로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05년부터 조성된 '휴심정'은 카페, 아트스페이스, 레스토랑이 결합된 복합 문화공간인 세컨드원으로 재탄생해 2021년 5월 문을 열었으며, 개장 후 42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2021년에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광호 광주시 녹지정책과장은 "제1호 민간정원 등록을 시작으로 광주에 걸맞은 녹색도시의 정원문화가 일상 환경 곳곳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베 피격 9개월만에 또 테러... 日 기시다 연설 직전 폭발물 터져

긴급 피신해 무사...부상자 없어 24세 용의자 체포 목비권 행사

일본에서 현직 총리를 겨냥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 30분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큰 폭발음이 났다.

기시다 총리는 현장에서 긴급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폭발음은 기시다 총리가 이날 오전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어항(漁港)에서 생선 시식 행사 후 보결선거 지원 연설에 나서려는 순간에 발생했다.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 남성이 은색 짧은 쇠파이프처럼 보이는 물건을 던진 후 하얀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났고, 현장에선 큰 소동이 벌어졌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던져 '위력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는 일본 효고(兵庫)현에 거주하는 기무라 유지(24)다. 용의자는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NHK에 "20~30cm 정도 길이의 쇠파이프 같은 것이 날아와 기시다 총리로부터 1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떨어졌다"며 "무엇이 폭발한 것인지 몰랐지만, 만약 그것이 바로 폭발했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모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15일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에서 현장 시찰을 마치고 연설을 시작하기 직전 폭발음을 야기시킨 물체를 던진 남성이 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상황이 담긴 NHK 방송 영상을 보면 용의자는 물체를 던진 후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 제압됐고, 폭발음은 그 이후에 들렸다.

작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에도 선거운동 기간 유세 현장에서 현직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

는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 연설회장에서 폭발물이 투척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기간에 이런 폭거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수 거문도·신안 흑산도 'K-관광 섬' 개발

문광부 전국 5개섬 선정

여수 거문도와 신안 흑산도가 세계인이 가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개발할 섬에 여수 거문도와 신안 흑산도를 비롯, 백령도(웅진군), 울릉도(울릉군), 말도·명도·방축도(군산시) 등 전국 5개 섬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정경 관광지인 섬에 K-컬처를 융합해 한국의 대표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도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여수는 'Fill in 거문도'라는 사업 계획을 제시했고 신안은 '가고싶은 K 관광 섬 자산인보 흑산도'라는 사업계획을 제시해

선정됐다.

선정된 섬에는 각각 4년 간 100억원 내외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담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섬별 지역 주민, 지역활동가, 관광사업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추진체계를 마련해 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에 나서는데 한몫,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관광 편의·서비스 기반 강화, 섬별 정체성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흑산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도서 소형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해 국토부가 도서공항을 조성하면 문체부는 섬 특성을 고려한 관광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민 89% "한국의 최우선 협력국은 미국" 2위는 중국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이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할 국가로 미국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5일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9.0%가 한국의 1순위 협력 대상으로 미국을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2순위 협력국으로는 중국(35.2%)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이어 일본(23.4%), 유럽연합(17.5%) 등 순이었다.

한미동맹의 분야별 기여에 관한 질문에는 국가

안보에 가장 큰 도움을 줬다는 응답이 10점 만점에 7.3점으로 최고였고 경제 성장(7.2점), 과학 기술 발전(7.0점), 국가신용(6.8점) 등이 뒤를 이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한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 대국이 됐을지를 두고는 64.6%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미국의 안보적 지원 필수적"(52.3%), "미국의 원조 등 경제적 지원 필수적"(32.6%), "미국 시장 접근과 미국 기업과의 협력 필수적"(15.1%) 등이 꼽혔다. /연합뉴스

명품 매장이 맹점 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취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명숙(440618-XXXXXX)
- 최후주소: 광주 서구 삼부대로1066번길 14 (화정동)

피상속인 망 김명숙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3321호로 신청하여 2023년 4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관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17일

- 상속인: 김병권(450725-XXXXXX)
광주 서구 삼부대로1066번길 14 (화정동)
- 신고기간: 2023. 4. 17. ~ 2023. 6. 27.
- 채권신고처: 법무사 김원중 사무소
광주 서구 경영로 24. 1층 (동성동)

분할합병 및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성민이엔에프(이하 "성민"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현명전력(이하 "현명"이라 한다)은 2023년 04월 14일 개회된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각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성민 55%주요어 제정하여 위와 분할된 재산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재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분할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3년 4월 17일

"갑" 주식회사 성민이엔에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곡로46길 13, 3층 301호(가락동)
대표이사 박성도

"을" 주식회사 현명전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 16, 에이202호(장안동, 허브빌리지)
대표이사 서명진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